죽든지 살든지 진짜로 믿으세요, 내 마음의 선장을

☞ A29면에서 계속

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참나를 찾는 공부를 계속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누구나가 다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이유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자기를 형성시킨 근본 자아가 있거든요, 자기를 형성시킨. 자기는 부모의 정자 난자를 빌려서 자기 영혼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된 업식, 그 악업 선업이 전부 같이 혼합이 돼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문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그 업식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업식을 다스리면서 내 마음의 근본 자아를 진짜로 자기 뿌리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업식 속에서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거를 나오는 자리에다 '너만이 참나가 있는 거를 알게 할 수도 있고, 나를 물리가 터지게 할 수도 있고, 지혜를 내게 할 수도 있어.' 하고 되맡겨서 일임한다면 참자기가 거기에서 발견이 돼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말입니다, 밑에 앙금이 가라앉아서 시뻘겋게 물이 들어 있는 병에다가, 저 뭡니까, 퐁퐁을 조금 넣어서 씻어 가지고서는 맑은 물을 거기다가 받았어요. 받으니깐 그 거품이나 뭐나 그냥 쫙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오더니 나중에는 그 나쁜 물이 다 없어지고 맑은 물이 채워지더라고. 연방 맑은 물이 채워지면서 흘러 내려오더라고요. 그와 같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공부를 해야 하나? 왜 이렇게 답답한가?' 하는 생각이 나오는 것도 그 구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로 인해서 그 생각이 나게끔 하는 거니까 없애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거기에 되맡겨라 이겁니다. 이 세상에 답답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생각하기에 달렸으니까. 금방 누가 뭐, 하혈을 하고 죽는다고 해도 답답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믿고 힘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답답할 게 없어요. 그런데 힘이 없는 사람일수록 방방방방 뛰죠. 배 안에 탄 중생들이 그냥 일어나서 아우성을 치면 배가 뒤집히듯이 말입니다. 그건 꼭 뒤집히고 만다구요, 하하하.

생활을 벗어나서 내가 없고, 나를 벗어나서 생활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거부터 죽는 거, 사는 거, 뭐, 생활하는 거, 나라가 움죽거리는 거, 전체가 모두 바로 부처님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모두 응용하세요. 자기부터 알아야 세계를 알고, 세계를 알아야 삼천대천세계를 알죠.

하여튼요, 제가 부탁드릴 얘기는 우리가 인간이라면 다섯 가지만큼은 누구한테도 기댈 수가 없는 겁니다. 다섯 가지 아시죠? 죽는 거, 아픈 거, 먹는 거, 똥 누는 거, 자는 거 이 다섯 가지는 제아무리 재주가 훌륭해도 대신 못 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다섯 가지 오신통이라는 것도 도가 아니니라' 한 것이 거기에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길에, 지금 한 철 나는 길에, 세세생생 돌아가는 거를 전체 집어 먹어야 된다이겁니다, 지금 한 생에. 한 찰나에 집어 먹듯이….

이런 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고자 한다면 되는 일이죠, 안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는 사람들은 "문을 찾아서 다니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즉 "학문을 따져서 책을 보고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겁니다. 책을 찾아서 다니는 건, 글자를 보고 알아서 깨치려고 하는 거는 저런 문 찾아다니는 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없는 문을 찾아서, 문이 없는 문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문 없는 문을 찾아서 성불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무척 쉬운 건데 모두들 그래요. 그냥 뭐, 자든지 깨든지, 일어나든지 앉았든지, 일을 하든지 모든 게 그놈이 움죽거리게 하니까 하는 건데 '네놈이 주인이 돼서 움죽거리게 하는 거니까 네 몸뚱아리 네가 가지고 가라.' 이러면 아주 편안하죠, 그냥 아주! 일생이 다 편안해요, 그냥. 그런 건데 뭐가 그렇게 사는 게 괴롭습니까? 왜 한 철 놀다 가는데 즐거웁게 놀다 가지, 왜 그렇게 궁상으로 살다가 가야 되느냔 얘깁니다.

그리고 옷만 벗어 버리고 또다시 옷을 입고 나올 텐데 그까짓 옷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요다음에 아주 그냥 세련되게 샘플을 해 가지고 내가 그냥, 하하하, 아주 거룩하게 탄생을 시켜서 나라를 그냥 휘어잡을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는데, 아니, 왜 그렇게 아둥바둥합니까? 그럴 것 없어요. 그저 춤추고 놀다 가는 거와 같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천천히 되느냐 일찍 되느냐가 문제지,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돈도 생명이 있고 마음이 있는 거라 그냥 요렇게 들여다보다가 '아휴, 저 집에 들어가서는 내가 고통스러워. 쪼개고 쪼개고 아이고, 구찮어.' 그러면서 달아나간다고요. 그런데 화목하고 웃고 즐기면서 '이거는 이렇게 쓰고 이거는 이렇게 쓰고 그러자.' 이렇게 하면 '아, 그러면 요게 참 편안하겠구나.' 그러고 그 집으로 들어간다구요. 이게 사실입니다. 내 그런 거 봤는데요? 하하하.

내 뜻과 상관없이 일들이 벌어져요

질문 저는 불자로서 항상 착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일이 벌어지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인연과보로 그냥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돌려놓아야 하는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방향이 제대로 나가지 않는 것은 이렇게…, 맷돌축 있죠? 축을 갖다가 제대로 꽂지 않으면 물건을 넣고 갈아도 제대로 갈려 나오지가 않습니다. 딴 방향으로 나갑니다. 마구 그냥 쏟아집니다. 그와 같습니다. 똑바로 끼워야죠. 아래 위가 똑바로 심봉이 끼워져야 제대로 일하며, 전자와 전자 줄이 한데 제대로 이어져야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대로 끼워져 있는 거니까 그대로, 저 나무뿌리가 있으니까 나무가 있듯이, 그대로 돼 있으니 그대로 철저하게 믿어라 이겁니다. 왜 자기 뿌리를 안 믿어요? 그렇다면 형상을 믿을 겁니까? 그래, 형상도 내 몸과 저 형상이 둘이 아니다, 부처님 형상이 내 형상과 둘이 아니요,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과 둘이 아니요, 또 부처님의 생명이 내 생명과 둘이 아니니 그저 둥글게, 모나게 하지 않고 둥글게, 일정례를 하더라도 둥글려서 일심으로써 진실하게 일배를 올려도 올려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딴 데로 나가는 거는 잘못 끼웠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마음 내기 이전의, 내 마음의 선장을 올바로 투시를 못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욕심대로 나가는 생각이 80%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건 3%밖에 안 되니까, 비중이 더 큰 데로 돌아가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크게 먹으려면 진짜 여기서, 뿌리에서 그 싹을, 전체를 살리고 있으니까 '너밖에 할 수 없다!' 하고 다 맡기고 심부름꾼으로만 사세요. 시자, 관리인!

사실 따지고 보면 관리인입니다, 심부름꾼이고. 따지고 보면 속의 생명들의 심부름꾼이기도 합니다. 또 이 사람 전체 몸뚱이의 심부름꾼이기도 합니다, 여러 생명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또한 둘이 아니죠. 그러니 마음 쓰기에 달려 있으므로 이 몸뚱이 속의 모든 의식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아주 고정적으로 입력이 돼 있는 의식들이 마음 씀씀이에 의해서 바로 화해서 달라진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을 따라 주게 해야, 내 마음 하나로 돌아가게끔 돼야 업보성, 인과성, 유전성, 영계성, 세균성 이 모두가 무너져서 딴 데로 흩어지질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부처님이 되지 못한 사람이지만 다 같이 이름해서 부처죠. 나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랬죠? 분수를 알아서, 내가 얼마만 한 그릇이란 거를 알고 해라 이겁니다. 내가 내 그릇에 이만한 걸 담아도 손색이 없을까 하는 걸 미리 알아차려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분수도 모르고 요만한 컵에다가 드럼통으로 하나를 갖다가 집어넣는다면 이게 담겨집니까? 그러니까 첫째, 분수를 알고, 진짜로 믿는다면 그냥 믿는다 안 믿는다도 없이, 진짜로 믿는다면….

나는 내가 하려고 한 것에서 벗어난 예가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얘기했지요? 처음에 여기 왔던 해에 김장할 다라이가 없어서 '다라이가 없으니 어떡하나? 김치를 해서 오는 사람들을 모두 줘야 할 텐데….' 하니까, 그 이튿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라이가 열 개가 들어왔어요. 왜냐. 그게 이심전심이에요. 이 모두가 이심전심으로 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내 마음 내기 이전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난처하게 생각 마시구요, '왜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번연히 알고도 이렇게 딴 데로 가나?' 이러지 마시고, 죽든지 살든지 진짜로 믿으세요. 아니, 더 잘 살려고 아무리 해 봐도 그렇다면 차라리 아예 '이젠 너 알아서 해!' 하고, '나는 부지런히 뛰어줄게, 너 알아서 해!' 하고 거기다가 맡겨 놓는 게 더 상책이 아닐까요? 더 살기가 편안하구요.

이거는 '내가 한다, 내가 짊어지고 내가 산다, 내 거다, 내가 망했다' 이런다면 어휴, 그거 사람이 한 생 사는 데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푹 쉬고 저 세 살, 다섯 살 먹은 어린애처럼, 또는 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믿고 그냥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 보세요. 책이 없어도 '아, 아버지가 사 줄 테지.' 하고 말이에요. 공책이 없다면 '공책이 없어, 아버지!' 그러면 사 주듯이, 이렇게 편리하게 사세요. 그러면 딴 방향으로 안 갈 것입니다.

과거 업연 때문인지요

질문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허약해서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모님을생각하면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인연도 과거 전생에 지은 업연으로 온 것인지요.

답변 과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부부 사이에서 몸 하나를 받아서 내 영혼과 인연의 줄을 다 끌고 한데 합쳐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 됩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인연들이 전부 내 배낭 속에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그러니 과거는 없어요. 그래 배낭 속에 있어 가지고 배낭 속에서 과거에 지은 업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대로. 몸으로 반영되기도 하고, 괴로움으로 반영되기도 하고, 애고로 반영되기도 하고, 유전성으로도 되고 영계성으로도 되고 아주 뭐,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녹이려면 모든 것에, 무조건 이유를 붙이지 마세요. 거기서 나온 거니까 무조건 거기서 해결할 수밖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맡겨 놓고, 거기서만이 해결을 할 수 있고, 거기서만이 낫게 할 수 있고, 낫게 해서 끌고 다니는 것도 거기서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자기 한마음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세요. 이열치열이란 말도 있죠? 거기다 놓으면 거기서 해결이 나는 겁니다. 모든 게 녹아지고요.

그것이, 즉 말하자면 인과로 인한 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두 관습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게. 업이 달리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모두 살아온 관습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도 세포 하나하나에 중생들이 들어 있으면서 악이면 악으로 갚으려고 하고, 선이면 선으로 갚으려고 두서없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중생들의 의식은 좋고 나쁜 걸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스려야 된단 얘깁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한마음이다. 한마음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다.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해결을 한다.' 이러면 원수졌던 마음이 그냥 까맣게 잊혀지고 그냥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뭐, 특별히 우뚝 솟는 거는 없다 하지만 차차 차차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이지 밝은 세상을 사시게 됩니다. 어저께가 따로 있고 오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그대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 배낭 속에서 과거의 업이 나오는 것을 녹이려면
> 무조건 한마음 주인공에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세요.
> 이열치열이란 말도 있죠?
> 거기다 놓으면 거기서 해결이 나는 것입니다.
> 모든 게 녹아지고요.

종도모집
구비서류, 입종신청서(총무원), 증명사진3매, 주민증복사본, 사·암사진(안,밖)
문의 : 010-4162-2900 팩스 : 055)972-2902
이메일 : Gongdeoksa@naver.com



불기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정산당 석 청봉

사서실장 석달오 예경원장 홍반야행 공보실장 석무오

원로의회 - 최고고문 석홍섭
원로원장 석보행 원로의장 석수오 승정원장 석원명

총무원장 석지혜 감찰원장 석법경 종회의장 석설산 포교원장 석법주
호법원장 석도언 호계원장 석법원 기획원장 석지광 행정원장 석범정
총무부장 석보명

각교구 종무원장
경남마창종무원장 석법경 부산종무원장 석법오 경남진주종무원장 석법원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충남종무원장 석진공 강원종무원장 석담행

비구니원
회장 석능현 부회장 석지현(경주) 총무 석법성 감사 석정현 포교부장 석지현(부산)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로 205, 천성산 불광사 전화 055)364-4747